

‘보건소 출판’ 광주 모 구청 감사 착수

보건소 내에서 출판물 발인 광주 모 구청 보건소장의 폭언·갑질 의혹에 대해 해당 구청이 감사에 나섰다. 광주 모 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2일 공무원 노조 측으로부터 A 보건소장에 대한 직원들의 무기명 설문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A 보건소장의 진행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해 33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설문에서는 'A 소장이 평소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을 들어 인격모독성 폭언을 했다', '계약직 직원의 지위를 폄하하며 갑질을 했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업무 능력 지적하며 잇단 폭언·위협 구청, 조사결과 따라 징계여부 결정

서류·불편을 직원 얼굴 앞에서 흔들거나 책상에 던지는 등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보건소장의 갑질은 특정 성별과 직렬에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소장은 지난해와 올해 3월에도 갑질 의혹으로 당시 지자체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소장은 "일부 직원이 오해한 점도 있지만, 표현이 잘못됐다"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고 특정 직원에 불이익을 주려 했던

사부서에 전달했으며, A 소장에 대한 감사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구청은 설문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A 소장에 대한 2차례 서면질의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A 소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A 소장이 올초부터 수개월간 보건소 교육장에서 친구 사이인 의대 동기 5명과 일명 '라인댄스'를 춘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도 보건소장이 지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은홍 기자

美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최소 13명 사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15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당초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약화돼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상륙한 플로렌스는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기세가 약해졌지만, 지난 24시간동안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약 80만명의 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스완스보로에서는 15일 아침 무려 30인치(76.2c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사상 신기록이다.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1999년 허리케인 플로리드 때 24.06인치였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말내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플로렌스"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된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동안 홍수를 겪지 않았던 곳에서도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4시간 전보다 오늘(15일) 홍수 위험이 더 크다"면서 "해안과 하천, 농지와 도시에서 물의 장벽(walls of water)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국립해양예기청(NOAA)을 인용해 노스캐롤라이나 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시티 광장서 총기난사 13명 사상

멕시코시티 시내 중심가의 광장에 14일 밤(현지시간) 독립기념일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군중 사이에서 민속 거리악단원의 비리야치 복색을 한 남성 3명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시 당국이 발표했다.

이 날 사건이 발생한 가리발도 광장은 멕시코 시티에서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멕시코 독립의 상징적인 광장으로, 관광객을 위한 길거리공연 악단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멕시코시티 경찰은 이 날 밤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 중 최소 한 명은 외국인이었다고 밝혔다. 멕시코 언론들은 이 번 총격범이 3명의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라 실라 로타 통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3명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자수로 장식된 상의와 바지 등 민속의상을 입고 있었다.

이 날 광장에서 일어난 유희사태는 다음날인 토요일 밤 독립기념일 축하 파티를 위해 많은 멕시코인들이 국민의 자부심이 어린 마리아치 의상을 입고 나오는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날의 축제는 1810년 멕시코가 스페인의 통치로부터 독립한 혁명기념일 기념행사이다. 따라서 멕시코 민요에 자주 나오는 혁명의 상징인 유명한 가리발도 광장도 가장 많은 군중으로 붐비는 날이다.

멕시코의 시민단체 "직무유기 반대 멕시코인 동맹"의 대표 리사 산체스는 이 날의 총격사건을 멕시코의 "날카로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군중이 모여있는 광장에서까지 뻔뻔하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멕시코에 민연한 범죄행위의 처벌 불능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총격범들을 수배하고 체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멕시코에서는 해결되는 살인 사건이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여성4명 연쇄살인 美 국경수비대원 체포

텍사스 국경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국경수비대원이 다섯 번째 여성이 납치되었다가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국경수비대 소속의 후안 디에고 오르티스대원을 "연쇄 살인범"이라고 부르며, 그를 15일 새벽 2시에(현지시간) 체포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마틴 쿨라 보안관은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시 남서쪽으로 235km 거리에 있는 국경도시 라레이도에서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체포 소식을 알렸다. 그는 부대에서 달아나 한 호텔 주차장의 트럭 안에 숨어 있다가 이 날 체포되었다.

쿨라리는 오르티스가 이미 4명의 여성들을 살해했다는 "대단히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피살된 여성들은 성매매 종사원들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의 이시드로 알라니스 검사도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편 이와 관련해 미국 세관경보보호국과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수비대에서는 공보관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수사에 모든 수사관들을 동원해 완전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추가확진 0명 의심환자 14명 '음성'

중증호흡기중증군(MERS·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14명이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업무 출장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A(61)씨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낮 1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심환자는 전날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차 없는 도로에서 신나게 16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한 페어리드를 하고 있다.

‘사법 농단’ 수사 석달…증거인멸 지속 등 사법 신뢰 ‘바닥’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여전히 물증 확보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전·현직 판사들의 증거 인멸 의혹은 사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월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이후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 실제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입의 제

출 자료는 과도하게 제한됐고 압수 수색 영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돼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들의 업무일지 과제, 휴대전화 파기, 이메일 삭제 등 지속적인 증거 인멸 사례가 다수 축적됐다고 주장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숨겨놓아 버렸다는 일부 판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법원이 거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무단으로 반출한 기록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은 문건 삭제 전 검찰에 해당 기록들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근에는 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해당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임 전 차장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넘겨받은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증거인멸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 있지 않다면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